

# 노계가사에 대한 일고찰\*

— 문학치료 서사이론을 중심으로 —

김은희\*\*

## 차 례

1. 머리말
2. 자기서사의 토로 - 〈누항사〉
3. 이상적인 사대부의 삶, 작품서사 - 〈사제곡〉
4. 작품서사와 자기서사의 통합, 그리고 치유 - 〈노계가〉
5. 맺음말

### | 국문초록 |

이 글은 문학치료 서사이론을 중심으로 박인로의 〈누항사〉와 代作인 〈사제곡〉 그리고 노년의 작품인 〈노계가〉를 연결시켜 강호가사라고 하는 동일성 위에서 드러나는 그의 내면변화를 살펴보았다. 문학치료 서사이론에 의하면 문학작품의 근저에는 작품서사가 있고, 작가 및 독자의 내면에는 자기서사가 있으며,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간극과 불일치가 자기서사의 변화를 추동하고, 다시 작품서사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작품이나 인생에 대한 이해가 변화·성장해간다고 본다. 이 때, 자기서사의 변화 및 성장은 자기서사의 보충·강화·통합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며, 자기서사의 건강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본다. 이에 이 글은 노계의 자기서사가 변모·성장하는 과정을 작품서사와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누항사〉에는 갈등의 서사로서, 현실(궁핍한 삶)과 당위(안빈낙도와 오륜·유가적 이념)의 거리라는 분열된 자기서사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 고통을 밖으로 드러내는 일은 치유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바, 〈누항사〉(가사) 창작을 통한 갈등의 토로는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성찰은 자기서사의 핵심을 발견하게 하고, 이를 통한 카타르시스가 가능해지면서, 갈등극복의 기반이 되고 있다. 還老 사대부의 자족적인 삶, 인간과 자연, 이념의 조화를 내재한 작품서사 〈사제곡〉 代作은 박인로에게 전형적·이상적인 사대부의 내면을 자기서사에 수용·통합할 수 있게 한다. 유교적 당위의 세계를 표현·제시해 보면서 〈사제곡〉은 노계에게 당위·理想의 서사로 작용, 만족감·자부심의 회복에 기여하며 넉넉한 자기긍정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바, 궁극적으로

\* 본 연구는 2016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자기서사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한다. 극복·완성의 서사인 <노계가>에 이르면, 이제 박인로는 자신만의 안빈낙도, 만족감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강호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작품서사를 통해 수용·통합된 자기 긍정,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찾아낸 늙은 사대부의 자기서사가 표출되어 있는 것이다. <노계가> 창작은 궁극적으로 현실과 이상의 갈등 해소-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통합의 결과로서 치유에 도달한 지점이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박인로는 가사창작을 통해 내면적 치유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바, 갈등의 서사인 <누항사>가, 당위·理想의 서사인 <사제곡>이라는 작품서사를 통해 보충·강화되었으며 <노계가>라는 통합단계를 거쳐, 긍정적인 자기서사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 바, 변화된 자기서사-극복·완성의 서사에 기반한 작품서사를 창작함으로써 갈등의 근본적 해소, 치유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어** : 노계가가사, 문학치료, 서사이론, 자기서사, 작품서사, 갈등의 서사, 理想의 서사, 극복 서사

## 1. 머리말

박인로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다양하고 광범위하면서 구석구석 꼼꼼하게 이루어져 있다. 초기에는 노계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연구, 이에 기반한 문학사적 위상, 정철·윤선도와와의 비교, 가사에 대한 주석, 『노계집』 관련 연구<sup>1)</sup> 등이 있었다. 이후 -이 글에서 참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하면- 전란으로 야기된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내적 갈등과 변화의 중심에서 9편이나 되는 가사를 창작함으로써 조선 후기 가사의 변화양상을 선구적으로 담아내고 표현했던 작가로서, 당위와 현실 사이의 거리를 두고 깊이 고심했기에 전에 볼 수 없던 작품세계를 이룩했다<sup>2)</sup>고 평가하기도 하고, 몰락한 향반의 후예로 평생을 빈한하게 살면서도 유가적 이념을 신봉하고 安貧樂道の 실천을 통해 유가지식인으로서의 규범에 충실하게 살고자 한 인물<sup>3)</sup>이라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또한 노계 문학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 향촌지식인의 생활문학이라 규정하기도 하고<sup>4)</sup>, 작품세계 전

1) 박인로에 대한 초기 연구 성과는 우응순, 「박인로의 '安貧樂道' 의식과 자연」, 『한국학보』 41, 1985 겨울, 38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6(1984), 314쪽.

3) 우응순, 앞의 논문, 37-58쪽. '궁핍한 삶과 안빈낙도'를 기반으로 정리한 작가론으로 서인석, 「가사 속에 담은 궁핍한 삶과 안빈낙도」, 『한국고전문학작가론』, 소명출판, 1999, 287-313쪽도 있다.

반을 현실적 토대<sup>5)</sup>, 창작 기반<sup>6)</sup> 특히 경제적 기반<sup>7)</sup>과 관련하여 천착한 연구들도 있다. 또한 노계가사 전반 혹은 노계의 한시 및 시조와 더불어 노계 문학 전반을 다루는 논의과정에서 〈누항사〉와 〈사제곡〉, 〈노계가〉 등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과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별 작품 연구는 단연 〈누항사〉가 많다. 강호가사로서 〈누항사〉와 강호의 의미<sup>8)</sup>를 살피기도 하고, 〈누항사〉를 자영농 시가 범주로 보는 연구<sup>9)</sup>가 있으며, 〈누항사〉에 나타난 ‘가난’과 ‘우환’의 의미를 우의적으로 해석·정리<sup>10)</sup>하기도 한다. 강호가사인 점에 초점을 맞춰, 〈사제곡〉의 강호구성의 원리와 철학적 기반<sup>11)</sup>을 연구하기도 하고, 〈사제곡〉과 〈소유정가〉비교를 통해 〈소유정가〉를 노계 작품으로 보지 않는 입장<sup>12)</sup>도 있으며, 〈노계가〉에 나타난 강호인식의 양상과 그 의미를 살핀 논문<sup>13)</sup> 등이 있다. 최근 논의 중 흥미로운 것으로 ‘장소성’과 관련지어 연구<sup>14)</sup>한 논문이 있으며, 〈누항사〉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여 자기치유의 기제를 내재한 작품으로 접근한 논의<sup>15)</sup>가 있고, 현장 답사를 통하여 현재 위치를 확정, 〈노계가〉의 창작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sup>16)</sup>한 논의 등이 있다.

- 
- 4) 성범중, 「노계 문학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94호, 1985, 217-237쪽.  
 5) 서종문, 「박인로 문학세계의 현실적 토대와 세계인식」, 『지역사회와 민족운동』, 한길사, 1987, 139-161쪽.  
 6) 최상은, 「노계가사의 창작기반과 문학적 지향」, 『한국시가연구』 11집, 2002, 255-278쪽.  
 7) 손대현, 「노계 박인로의 경제적 기반과 문학적 형상화」, 『한국시가연구』 29집, 2010, 121-156쪽.  
 8) 김성룡, 「〈누항사〉와 강호의 의미」, 『한국고전시가작품론』, 집문당, 1995, 691-698쪽.  
 9) 김용철, 「〈누항사〉의 자영농 형상과 17세기 자영농 시가의 성립」, 정재호편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249-286쪽.  
 10) 박연호, 「〈누항사〉에 나타난 ‘가난’과 ‘우환’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64집, 2013, 341-364쪽; 특히 각주1)에는 〈누항사〉에 형상화된 ‘가난’을 노계 경험의 사실적 표현으로 보는 입장들과 당대 현실과 관련된 사대부로서 비판의식의 우의적 표현으로 보는 입장이 대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11) 김용철, 「〈사제곡〉에서 강호구성의 원리와 철학적 기반」, 『어문논집』 40, 민족어문학회, 1999, 25-60쪽.  
 12) 윤영옥, 「〈사제곡〉과 〈소유정가〉 연구」, 『한민족어문학』 40, 한민족어문학회, 2002, 169-204쪽.  
 13) 최현재, 「박인로의 〈노계가〉에 나타난 강호인식의 양상과 그 의미」, 『한민족어문학』 65집, 2013, 235-266쪽.  
 14) 최현재, 「노계가사에 나타난 장소성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34집, 2013, 57-82쪽.  
 15) 박태진, 「〈누항사〉 창작에 발현된 자기치유기제의 가치 모색」,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고전문학 교육』, 2013, 293-315쪽.

이 글은 이들 기존의 노계가사 연구 중, 강호가사 연구 성과 및 문학치료 서사 이론을 학계에 정착시킨 정운채 선생의 논의에 기대어 전개된다. 따라서 노계가사의 시가사적·문학사적 가치나 위상 등은 기존의 연구 성과에 동의함을 전제하고 있으며, 노계라는 한 작가(인간)의 삶과 내면, 그의 가사작품 창작의 상관성을 문학치료·자기치유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작품 내부로 들어가 구체적·실증적으로 입증해 보는 것<sup>17)</sup>이 목표이며, 그 결과 가사 창작행위의 치유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계의 생애와 강호가사 작품을 살펴다 보면 특히 그의 내적갈등과 극복과정에서 주목하게 된다. 사대부와 농민, 양쪽에서 소외된 괴로움을 절실하게 그린 〈누항사〉와 자기치지의 표리를 다루고 있어 함께 비교되는 〈노계가〉<sup>18)</sup>는 代作, 爲作, 慕作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직접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계의 내면이 가장 잘 내재된 작품으로 보이는 바 관심 갖게 된다. 즉 51세에 쓴 〈누항사〉가 전쟁 이후, 궁핍한 삶에 봉착한 몰락한 향반으로서의 구체적인 현실인식과 갈등을 짙진하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인생 말년(76세) 작품 〈노계가〉는 노계가 소망했던 자연 속에 사는 만족감과 자부심을 노래하는 바, 온화하고 도덕적이며 이념적인 사대부가사의 경지에 도달하는 양상, 다른 사대부 작가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변화양상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들 작품에 노계의 자기서사가 어떤 양상으로 내재해 있으며, 무엇이 그 긍정적 변화를 추동한 것인지 문학치료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또한 노계 생애 전반을 통해 시기적으로 〈누항사〉와 〈노계가〉 사이에 〈사제곡〉 〈독락당〉 〈소유정가〉 〈입암별곡〉 등의 강호가사가 더 있으나 이들은 代作, 爲作, 慕作<sup>19)</sup>의 성격을 지닌 작품들이라는 점에

16) 성호경, 「박인로의 〈노계가〉 창작배경 탐색」, 『고전문학연구』 51집, 2017, 35-63쪽.

17) 이러한 입장은 “노계가사에는 작가의 생애, 사상, 경험 등이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어 전쟁과 충성, 전후의 窮苦, 山水愛, 자연흥취, 안빈낙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노계가 고난을 극복하며 유학윤리의 참 길을 찾으며 살았는데 그의 가사 어느 名句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독특한 노계의 삶이 바로 노계 가사의 특색의 본체가 되고 있다.”는 선학의 결론에 기대어 있다. 심재완, 「노계가사의 특색」, 『한국시가문화연구』 9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02, 151쪽.

18) 조동일, 앞의 책, 314-315쪽.

19) 성범중, 앞의 논문, 227-228쪽. 노계가 代作, 爲作, 慕作을 한 이유로 소외감에 바탕 한 당대 士人들의 현실에 대한 羨慕感의 표백으로 본다. 즉 노계에게 실제 그렇게는 될 수 없는 다른 현실을 부담 없이 묘사, 그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심리적인 반대급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본다.

서 노계에게 작품서사로서 작용한 구체적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중, 〈사제곡〉에 눈길이 가는 바, 시기적으로는 괴로움의 절실한 토로라 할 수 있는 〈누항사〉와 동시기 작품이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자족적인 삶의 조화로움이 담겨있는 전형적인 사대부의 강호가사라는 면에서 〈노계가〉와 유사한 점 등 두 작품과의 관련성 때문이다. 여기에 집중적이고 실증적이며 구체적인 접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지면 관계 상, 〈사제곡〉 한 작품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결과적으로 이 글은 노계의 생애와 강호가사 작품을 전생애에 걸쳐 자기서사-작품서사의 변화과정으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누항사〉는 자기서사의 사실적 토로로 보며, 代作인 〈사제곡〉은 타인의 삶을 체험하는 작품서사로 접근한다. 그렇다고 어떤 작품은 자기서사이고, 또 어떤 작품은 작품서사라는 식으로 정확히 구획지어 정리하는 입장은 아니다. 〈사제곡〉에도 노계의 자기서사가 상호 작용하고 있음이요, 〈노계가〉 또한 〈사제곡〉과의 상호작용-통합의 결과임을 확인해 볼 것이다. 문학작품의 근저에는 작품서사가 있고, 작가 및 독자의 내면에는 자기서사가 있는 바, 서로 맞물려 변화를 추동하고 유도하면서 작품이나 인생에 대한 이해가 점차 변화·성장해간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강호가사’를 문학치료학에서 말하는 서사로 치환해 보면, 근본적으로 사회와 당쟁 등의 정치현실과 관련된 처신, 즉 출처에 대한 갈등을 유가적 이념이나 안빈낙도라고 하는 명분에 기대어 진정시키고자 하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적 지향성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라 할 수 있다. 자기서사는 모두 심층에 있는 것으로 인간관계의 형성과 위기, 회복에 대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간관계와의 관련 속에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호가사는, 작품에 따라 층위가 다를 수 있으나, 사대부들이 왕이나 다른 사대부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즉 각자가 갖고 있는 문학, 즉 자기서사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자기서사는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면서 동시에 증상을 없앨 수 있는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강호가사는 문학치료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sup>20)</sup>

이런 연유로 〈누항사〉와 代作인 〈사제곡〉, 그리고 〈노계가〉의 차이와 변화양

상이 노계의 삶과 관련되어 그의 내면 변화를 선명하게 담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즉 개인적 고뇌를 자기내부에서 해결하여 삶의 균형감을 유지하려고 애쓴<sup>21)</sup> 작가로서 관심 갖게 되었다. 이를 상반된 의식과 문학적 관습의 혼재양상 혹은 의식의 보수성과 표현의 개방성을 동시에 지닌 작가라 볼 수도 있지만, 상반된 의식과 관습을 관통하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살피는 노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sup>22)</sup> 즉 노계의 내면적 진실의 궁극적 지향점을 찾아보는 것이 목표다.

문학창작이 슬픔, 억울함, 분노 등의 정서를 지우는 효과, 그런 정서로부터 벗어나는 효과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sup>23)</sup>이다. 자기고통의 토로는 카타르시스와 성찰을 통한 치유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조선후기 ‘사대부’로서 ‘가난’이라는 절망적 상황에 처한 그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되,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읽어냄으로써 노계내면의 변화양상을 분석·제시하여, 가사 창작 및 향유가 노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문학치료 서사이론과 관련지어 접근해 보려한다.

이에 기존 연구결과를 참고하면서, 〈누항사〉와 〈사제곡〉, 〈노계가〉를 대상으로 강호가사라고 하는 동일성 위에 드러나는 내면의 변화, 자기위안과 극복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을 취한다. 인간이 곧 문학이며 문학이 곧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문학을 매개로 그 치유에 관심을 갖는 서사이론<sup>24)</sup>을 통하여 박인로 내면이 병약하고 분열된 서사에서 건강하고 통합된 서사로 변화되는 문학치료 과정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려 한다. 문학치료에서 치료란 자기서사가 작품서사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계의 자기서사 변모과정은 노계

20) 나지영, 「문학치료학의 ‘자기서사’ 개념 검토」, 『문학치료연구』 제1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42-53쪽 참고.

21) 서인석, 앞의 책, 311쪽.

22) 이는 노계가, 존경하거나 교류하던 유학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했기에 사대부적 자의식, 작가적 감수성 등을 영향받았을 것으로 보는 바, 동시기 작품인 〈사제곡〉과 〈누항사〉에 분열된 정체성이 표출되는 반면, 〈노계가〉에서는 안정된 정서와 정체성이 표출되고 있음에서 촉발된 것이다.

23) 프로이트 저, 김미리혜 역, 『히스테리 연구』, 열린책들, 2003, 19-20쪽 참고

24) 정운재,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47-278쪽.

가 읽고 들은 작품서사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진다. 즉 궁핍한 현실에 처한 갈등과 비애, 처절한 자기내면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자기서사의 토로라 할 수 있는 〈누항사〉에서 이덕형의 안빈낙도를 代作함으로써 박인로가 선망하던 이상적 사대부 삶을 보여주는 〈사제곡〉이라는 작품서사의 수용 및 소통을 거쳐, 이들 자기서사와 작품서사가 통합된 〈노계가〉-자기서사의 긍정적인 변화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기존 문학연구와 달리 문학치료학은 ‘서사’에 초점을 맞춘다. 병약한 ‘서사’를 치료하는 것이다. 문학을 창작·감상하는 궁극적 이유는 자기서사의 변화를 갈구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문학작품의 존재이유는 자기서사의 변화에 있고, 문학치료학에서는 언제나 서사를 통하여 사태를 이해하게 된다고 본다. 문학작품의 근저에는 작품서사가 있고, 작가 및 독자의 내면에는 자기서사가 있으며,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간극과 불일치가 자기서사의 변화를 추동하고, 다시 작품서사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작품이나 인생에 대한 이해가 점차 변화·성장해간다고 보는 것이다.<sup>25)</sup> 여기서 자기서사의 변화 및 성장은 자기서사의 보충·강화·통합을 통해서 가능하다.<sup>26)</sup> 즉 문학치료학에서는 ‘작품서사’와 ‘자기서사’로 나누어 작품이해 및 작가나 독자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이 때, ‘작품’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서사를 ‘작품서사’라 하고, ‘작가’나 ‘독자’의 ‘인생살이’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서사를 ‘자기서사’라고 한다. ‘작품서사’와 함께 ‘자기서사’를 상정하고, ‘작품’과 함께 ‘인생살이’를 상정한 것은 문학치료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로써 작가나 독자에 대한 논의를 작품에 대한 논의와 동일한 차원에서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문학치료학 서사이론에 따르면 작가의 작품 생산과정과 독자의 작품 수용과정에 별 차이가 없다. 작가는 ‘자기서사’가 지향하는 ‘작품서사’를 기반으로 작품을 생산하며, 독자 역시 ‘자기서사’가 지향하는 ‘작품서사’에 따라 작품을 수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작품에 대해서 작가와 독자는 대등한 위치에서

25)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 및 서사의 주체」, 『영화와 문학치료』 3, 서사와 문학치료연구소, 2010, 320-329쪽 참고.

26) 정운채,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밀그림」, 『고전문학과 교육』 제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172-173쪽.

상호소통을 추구한다고 보는 것이다.<sup>27)</sup>

노계에게 자기서사·노계가 인생살이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서사, 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서사, 노계의 꿈의 핵심은 양반 사대부 집안이라는 점, 어릴 때부터 시를 잘 썼다는 점(戴勝吟) 따라서 입신양명에의 의지 혹은 강호 한 꿈은 포기할 수 없는 지향점인 동시에 당위적 삶의 방식이자 문학하는 근거였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사대부로서 고관대작을 기대했을 것이나, 무관 밖에 할 수 없는 현실, 전형적인 강호의 삶을 살고자 했던 소망과는 달리 부처 먹을 땅도 노비도 소도 없는 가난으로 인한 갈등이 그를 괴롭힌다. 그리고 이같이 어려운 현실에서 그를 지켜주는 원동력은 유가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존의식이었다. 이는 개인적 의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신분적·학문적으로 추앙받는 사대부들과 선현들, 선비들과의 대인관계를 통하여 이념적 확신을 얻은 결과이기도 하다.<sup>28)</sup>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누항사>에서 시작한다. <누항사>에서 노계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적 불행을 잘 헤쳐 나갈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 몰락한 사대부로서 '가난'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불행을 헤쳐 나가는 방법이 바로 가사창작<sup>29)</sup>인 것이다. 노계가 그렇게 많은 가사작품을 창작한 이유도 이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노계의 가사창작은 그에게 실존을 확인하는 방식<sup>30)</sup>이었다. 이에 가사창작을 통해 노계의 갈등이 해소되어 가는 과정을 살피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노계에게 있어 가사창작이 심리적·정신적 갈등을 극복하는 장치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27) 정운재, 「서사접속 및 서사능력과 문학연구의 새 지평」, 『문학치료연구』 2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153-170쪽 참조.

28) 최상은, 앞의 책, 269쪽.

29) 가사는 '노래하기(歌)'와 '다 갖추어 말하기(辭)'라는 이질적 두 요소의 조화·융합을 본질로 한다. '자상하게 다 갖추어 말하기'를 통해서 작가의 소회를 다양·섬세하게 풀어내고, 구체적·실질적으로 드러낸다. '다정하게 말하기·노래하기'를 통해서 상황해지려는 유가적 이념, 하소연 등을 울격적·형식적으로 응축시켜 자신의 정서를 깊이 공감하게 한다. 또한 이 두 요소가 융합됨으로써 발생하는 카타르시스를 통해, 내면의 통찰을 거쳐 자기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김학성, 「가사의 양식특성과 현대적 가능성」, 『우리 전통시가의 위상과 현대화』, 보고사, 2015, 304-337쪽.

30) 성병중, 앞의 책, 223쪽.

## 2. 자기서사의 토로 - 〈누항사〉

박인로의 현실체험이 〈누항사〉 창작의 바탕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몰락한 향반 사대부의 ‘자기서사’의 투영이자 토로이다. 노계의 내면에 자리 잡고 그를 추동하며 규율해 나가는 ‘인생설계의 청사진’<sup>31)</sup>의 좌절과 슬픈 자기위로가 표현되어 있다. ‘가난’이라는 현실과 유가적 당위의 거리가 극대화된 상태를 노출하면서 시작한다.

어리고 迂闊 홀산 이너우히 더니업다/吉凶 禍福을 하날기 부쳐두고/陋巷 김푼곳의 草幕을 지어두고/風朝 雨夕에 석은딥히 접히되야/서홉밥 닻홉粥에 煙氣도 하도할사 /설데인 熟冷에 빈빅씩일 썬이로다/生涯 이러흐다 丈夫뜻을 옴길년가/安貧 一念을 적음망정 품고이서 /隨宜로 살려흐니 날로조차 齟齬하다/무히 不足거든 봄이라 有餘흐며 /주머니 뷔엿거든 瓶이라 담겨시랴/ 貧困호 人生이 天地間의 나쁜이랴/飢寒이 切身호다 一丹心을 이질는가<sup>32)</sup>

박인로는 먼저 어리고 우환한 자신의 문제를 토로한다. 생활의 기본조차 해결되지 않는 고통에 봉착한 자기고민이 드러난다. 궁핍한 현실에 처한 갈등과 비애, 처절한 자기내면을 서술하는 것이다. 가난은 매우 구체적이고 솔직하며 적나라하다. 이것은 현실 속의 자기모습을 확인하고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울분의 발산과 카타르시스라는 두 효과를 함께 보는 것<sup>33)</sup>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의 내면을 지탱하는 것은 ‘안빈일념’이라는 대장부의 뜻이며 가난도 어쩔 수 없는 ‘일단심’임을 확인한다. 자기서사의 토로인 것이다. 옳은 일을 쫓아 살려 해도 날이 갈수록 어긋나는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자기의지의 확인이기도 하다. 여기서 ‘누항’은 박인로에게 물질적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그 구체적인

31) 김석희, 「문학치료적 관점으로 본 도산십이곡의 서정적 특질」, 『문학치료연구』 2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10쪽.

32) 원문 텍스트 자료는 한국고전종합DB(목판본 『노계선생문집』 卷之三, 1831, 서울대 규장각본), 한국고전번역원을 제시한다. 아울러 임기중 편저,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5권(〈노계가〉와 〈누항사〉), 9권(〈사제곡〉), 아세아문화사, 2005도 참고하였다.

33) 성범중, 앞의 논문, 225쪽.

경험, 艱難한 삶이 녹아 있는 장소로서 의미를 지닌다. ‘누향’은 이념의 공간이나 명분의 공간이라기보다, 현실의 장소, 물질 토대가 부족하여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장소인 것이다.

奮義 忘身 ㅎ야 죽어야 말너너겨/于橐 于囊의 줌뽀이 모와너코/兵戈 五載에 敢死  
心을 가져이셔/履尸 涉血 ㅎ야 몇百戰을 지너연고/一身이 餘暇잇사 一家를 도라보랴  
/一奴 長鬚는 奴主分을 이겨저든/告余 春及을 어너사이 싱각ㅎ리/耕當 問奴 ㄴ들 놀  
드려 물릴논고/躬耕稼穡이 ㄴ分인줄 알리로다

일신의 안위를 잊고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향촌에서, 보상은커녕 굶주림만 있는 상황으로 촉발된 현실에 대한 원망과 절망감<sup>34)</sup>을 토로하고 있다. 武人으로 5년 동안 수많은 전장을 누비면서 국가를 위해 싸웠음에도 전쟁 후, 심해진 가난의 고통, 사대부로서 기본적인 품위유지도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자조가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躬耕稼穡이 자신의 분수라고 성찰하면서 이를 명분삼아 이겨내려는 마음으로, 자신을 위로한다.

달업슨 黃昏의 허위허위 다라가셔/구디다든 門맛기 어득히 혼자서셔/큰기춤 아함  
이를 良久토록 ㅎ은後에/어화 괴뉘신고 廉恥업산 ㄴ옴노라/初更도 거윈디 괴엇지  
와겨신고/年年에 이러ㅎ기 苟且 ㅎ출 알건만는/쇼업슨 窮家에 혜염만하 왓삽노라  
..... 현면덕 수기스고 축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오니/風彩저근 形容에 기즈  
칠 ㄴ이로다/蝸室에 드러간들 잠이와사 누어시라 ..... 식빅를기다리니/無情 ㅎ 戴勝은  
이너恨을 도우느다/終朝惆悵 ㅎ며 먼들흘 바라보니/즐기는 農歌도 興업서 들리느다

지금까지 가사에 등장하지 않았던 일상생활의 언사를 대폭 받아들여 자기고민을 절실하게 묘사했다고 평가<sup>35)</sup>받는, 〈누향사〉에서 가장 새롭고 문학적 표현이 탁월한 부분이다. 반면에 〈누향사〉에서 자신의 무력한 처지, 처절한 상황과 모습이 가장 자조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다. 이 장면에는 안빈일념이나 충효 등의

34) 손대현, 앞의 논문, 135쪽.

35) 조동일, 앞의 책, 315쪽.

자부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박인로가 의지하는 유교적 이념이나 당위는 의미 없으며, 물질적 결핍으로 인한 현실적 고통만 있을 뿐이다. 현실적 가난과 이웃의 냉대로 인한 좌절 때문에, 이념이나 명분을 내세울 여력조차 없어 보인다. 그것은 ‘한’이 되어 박인로의 정신적 위축과 내면의 황폐화를 야기한다. 이 사건은 사대부로서의 박인로의 정체성마저 흔들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누항사〉는 갈등의 서사이다. 전형적인 강호의 삶을 살고자 했던 소망과는 달리 부처 먹을 땅도 노비도 소도 없는 가난으로 인한 갈등의 서사, 고뇌에 찬 자기처지의 확인인 것이다. 〈누항사〉는 가난한 향촌사족의 가난 적응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향촌사족의 갈등과 절망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다. 생활인으로서의 적응기이자 이에 패배한 사대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체념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누항사〉에서는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박인로는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유교적 당위의 세계로 안주한다. 어려운 현실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원동력은 유가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자존의식이었던 것이다. 돌파구 없는 현실에서 선택 가능한, 유일한, 사대부다운 명분인 것이다. 극복 불가능한 가난을 그 자체로 편안하게 여기는 마음, 더 나아가 가난 속에서도 추구하는 충효와 오륜, 이는 처절한 자기 위로이자 자기서사의 토로인 것이다.

자기서사가 ‘인생이 그런 방식으로 구현되도록 만드는 서사’<sup>36)</sup>라고 할 때, 〈누항사〉에서 슬픔, 갈등의 토로를 통한 성찰 끝에 도달한 안빈낙도와 유가적 이념의 확인이라는 자기서사의 발견으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이며, 이는 강호가 가사로서 근본적인 좌절극복의 기반이 내재되어 있음이다. 가사를 창작한다는 것은 살면서 감각으로 수용되고 느껴진 구체적 현실체험들이 용해되어 있다가 그것이 어떤 계기로 ‘상상력’과 결합·추상화되어 작품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바,<sup>37)</sup> 〈누항사〉 또한 노계가 살면서 겪었을 구체적 현실체험들이 용해되어 있다

36)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앞의 논문, 247-278쪽.

37) 한명희,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본 영화 〈시〉 -미자의 시 창작행위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2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98쪽. 여기서 “시”를 창작한다는 것”이라고 말하나, ‘시’는 문학 일반이라 봐도 되므로, “가사”를 창작한다는 것”으로 변형·인용한다.

가, 한음이 山居窮苦之狀<sup>38)</sup>을 질문한 것을 계기로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자신의 빈궁한 삶을 소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내적 갈등은 깊어졌겠지만 동시에 위안도 받았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 고통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자기를 치유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江湖 흔숨을 꾸언지도 오릭리니/口腹이 爲累 ㅎ야 어지버 이저씨다/瞻彼 淇澳흔디  
 綠竹도 하도할샤/有斐 君子들아 낙디 ㅎ나 빌려스라/蘆花 김픈곳애 明月淸風 벗이되  
 야/넘지업슨 風月江山애 절로절로 늘그리라/無心 ㅎ 白鷗야 오라 ㅎ며 말라 ㅎ라/다토  
 리 업슬슨 다문인가 너기로라 ..... 이시면 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남의집 남의거  
 슌 전혀부러 말렸노라/貧賤 슬히너겨 손을헤다 물너가며/남의富貴 불리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랴/人間 어너일이 命밭긔 삼겨시리/貧而 無怨을 어렵다 ㅎ건마느/어生  
 涯 이리호디 설은뜻은 업노왜라/簞食 瓢飲을 이도足히 너기로라/平生 ㅎ뜻이 溫飽애  
 는 업노왜라/太平 天下애 忠孝를 일음삼아/和兄弟 信朋友 외다 ㅎ리 뉘이시리/그밭  
 그 남은일이야 삼긴디로 살렸노라

노계의 자기서사 ‘인생살이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서사’가 노출되어 있다. 그것은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대부로서의 이념적 확신이다. 궁곤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빈이무원’과 ‘단사표음’이라는 강호에서의 존재방식이었으며, ‘충효’ 및 ‘화형제 신봉우’라는 유가적 이념에 대한 확신과 실천 의지였다. 이것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여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힘의 원천인 것이다. 오래전부터 꾸었던 강호 한 꿈에로의 회귀는 현실의 충격으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이념적 근거로서 안빈낙도인 것이다.

박인로는 <누항사>에서 거듭 자신의 현실적 고통과 유가적 당위를 견주어 보고 있다. 이는 이상적인 유가적 삶이 좌절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통의 원인이 되는 ‘가난’이라는 현실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로서의 ‘가난’을 받아들이고, 토로하는 과정에서 내면 성찰을 통해 안빈낙도라는 근원적인 자기서사를 드러내 보임으로

38) “公從遊漢陰相公 相公問公山居窮苦之狀 公乃述己懷作此曲.” 박인로, <누항사>, 목판본 『노계선생문집』 卷之三, 1831, 서울대 규장각본,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써 고통의 카타르시스에 도달하는 것<sup>39)</sup>이다.

여기서 속세에서 실현해야 할 오류를 ‘강호’에 와서 행하겠다는<sup>40)</sup> 노계의 토로는 윤리적 실천을 통해 자신이 처한 위기와 상처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마음의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강호’와 ‘오류’로 대표되는 유교 윤리는 노계가 자신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인 것이며, 가난, 강호, 윤리는 그의 의식에서 긴밀한 관련을 갖고 얽혀 있는 것이다. ‘유가적이며 윤리적인 실천(太平天下에 忠孝를 일음삼아 / 和兄弟 信朋友 외다하리 뉘이시리)’에 매달리면서 토대가 무너지가는데서 오는 어지러움을 치유해 보고자<sup>41)</sup> 한 것이다.

〈누항사〉는 유가적 사고-현실 긍정적 세계관에 토대를 두고, 가난이라는 시대적 문제조차 ‘자연’에 귀의하여 유가적인 윤리와 이념으로 내면화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던 바, 노계는 개인적 고뇌를 자신의 내면에서 해결하여 삶의 균형감을 유지하려고 애쓴 모습을 보여준다. 사대부들이 달라진 현실 속에서도 이념과 명분으로부터 위안 받을 수 있었던 바, 박인로 또한 안빈낙도라는 명분은 그에게 위안을 주었을 뿐 아니라, 냉혹한 현실체험의 갈등 속에 자신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마지막 보루 같은 것이었다.

### 3. 이상적인 사대부의 삶, 작품서사 - 〈사제곡〉

〈사제곡〉은 한음 이덕형을 위해서 代作한 작품<sup>42)</sup>이며, 〈누항사〉와 같은 시기에 창작된 작품이다. 기록에 의하면 〈사제곡〉은 한음이 노계에게 退老하여 자연

39) 박태진, 앞의 논문, 310쪽에서는 이 마지막 부분을 농사를 짓겠다는 마음 대신에 ‘안빈일남’으로의 전환이라 보고 이를 ‘관심의 전환’이라는 치유작용 기제의 도움을 받는다고 본다. 즉 농사짓겠다는 마음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안빈일남의 가치를 성찰하는 바, 그 성찰의 결과, 현실의 전환은 강화되고, 안빈낙도의 의미를 다짐으로써 가난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게 된다고 본다.

40) 김성룡, 앞의 책, 695쪽.

41) 서인석, 앞의 책, 307-308쪽.

42) “莎堤 地名 在龍津江東距五里許 卽漢陰李相公江亭所在處也 公代相公作此曲.” 박인로, 〈사제곡〉, 목판본 『노계선생문집』 卷之三, 1831, 서울대 규장각본,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에 사는 한가로움과 즐거움을 말하고 이것을 노계가 가사로 창작한 것이다. 동시에 <사제곡>은 이덕형 대신 창작한 작품에 나타나는 ‘노계의 꿈의 표현<sup>43)</sup>’이다. 한음의 처지를 빌어 강호자연 속의 유유자적한 삶을 그려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작품이 노계에게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박인로가 선망하던 이상적인 사대부의 삶을 보여주는 <사제곡>은 한음의 강호자연-안빈낙도를 代作함으로써 박인로에게 작품서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제곡>에 담긴 전형적인 사대부 이덕형의 강호인식 및 삶의 자세는 박인로의 자기서사와 소통하고, 수용·융합되면서 삶에 지쳐 갈등하던 박인로를 위로와 성찰의 경지로 이끌어간다.

어리고 拙<sup>호</sup>몸에 榮寵이 已極<sup>호</sup>니/鞠躬 盡瘁<sup>호</sup>야 죽어야 말녀 너겨/夙夜 匪懈<sup>호</sup>  
야 밤을 낮고 思度<sup>호</sup>들/관술의 현불로 日月明을 도울는가/尸位 伴食을 멧히나 지내  
연고/늘고 病이 드러 骸骨를 빌리실시/漢水東 사<sup>호</sup>로 訪水 尋山<sup>호</sup>야/龍津江 디내올  
나 莎堤안 도라드니/第一 江山이 임지업시 褻려<sup>호</sup>나<sup>44)</sup>/平生 夢想이 오라<sup>호</sup>야 그려  
던지/水光山色이 넋<sup>호</sup>들 다시본듯/無情<sup>호</sup> 山水도 有情<sup>호</sup>야 보이<sup>호</sup>나

<누항사>와는 전혀 다른 시작, 전혀 다른 세계이다. 지극한 임금의 사랑이 있고, 세속적인 삶의 고통은 없으며, 따라서 안빈일념에 대한 자기의지를 확인 할 필요도 없다. 늙고 병이 들어 벼슬을 그만두고, 용진강 동쪽 ‘莎堤-제일강산’에서 평생 꿈꾸었던 산수를 현실로 만나는 감흥, 그리하여 강호자연 속의 삶을 시작하는 즐거움이 편안하고 온유한 목소리로 표현되어, 退老 사대부에게는 은퇴 후에 이런 삶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임을 드러낸다.

白沙 汀畔의 落霞을 벗기<sup>호</sup>고/三三 五五히 섯기노는 大白鷗야/너드려 말뚝자 놀  
 너디 마라스라/이名區 勝地을 어디라 드러<sup>호</sup>나/碧波 | 洋洋<sup>호</sup>니 渭水伊川 아닌게오  
/層巒이 兀兀<sup>호</sup>니 富春箕山 아닌게오/林深路黑<sup>호</sup>니 晦翁雲谷 아닌게오/泉甘 土肥<sup>호</sup>

43) 성범중, 앞의 책, 227쪽.

44) 이후 ‘굵은 글씨-밑줄 표시 부분은 <사제곡>과 <노계가>에 동시에 나오는 유사 표현들로 그 유사성 및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필자의 의도에 의한 것이다.

니 李愿盤谷 아닌게요 /徘徊 思憶호되 아모딘줄 내몰내라/岸芝汀蘭은 清香이 郁郁  
 하야 遠近에 이어잇고/南澗東溪에 落花ㅣ ㅁ득 줌겨저늘/荊棘을 헤혀드러 草屋數間  
 지어두고/鶴髮을 뫼지고 終孝를 흐려너겨/爰居爰處하니 此江山之 임재로다

‘莎堤’가 곧 名區勝地라는 흡족함이 모래사장과 노을, 삼삼오오 나는 백구, 양양한 푸른 물결과 우뚝 솟은 산봉우리, 숲과 샘을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형상화되는 바, 이는 각각 渭水의 姜太公, 伊川의 程頤, 富春山의 嚴光, 箕山의 巢父와 許由, 雲谷의 朱子, 盤谷의 李愿 등 강호가사에 관습적으로 언급되는 名區勝地와 그 곳에 사는 대표적인 은일지사에 빗대어 능숙하게 노래함으로써 한음이 깃들여 사는 자연이 이 모든 아름다움을 갖춘 승경임을 자랑한다.

관념적·상투적인 앞부분에 비해 비교적 구체적·사실적으로 형상화된 후반부 또한 물가에 널리 퍼진 난초 향기, 시냇물 가득 떨어진 낙화로 아름다운 곳에, 가시덩굴을 헤치고 들어가 초가집 짓고, 늙은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겠다는 생각 등이 강산 임자로서의 자부심으로 귀결·표현된다. 안정적인 경제기반, 존경받는 사회적 위치, 정치적 성공을 경험하고 退老한 전형적인 사대부의 강호인식이 효심과 함께, 자부심·성취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三公不換 此江山을 오늘스 아라고야/어즈러은 鷗鷺와 數업슨 麋鹿을/내흔자 거느려  
 六畜을 삼아거든/갑업슨 淸風明月은 절노己物 되야시니/늬과다른 富貴는 이흔몸에  
 ㅁ자외야/이富貴 가지고 저富貴 부를소냐/부를줄 모르거든 사귄줄 알리던가/紅塵도  
 머러가니 世事을 듯볼소냐

이는 다시 삼공이 누리는 부귀와도 바꾸지 않을 강산에 대한 자부로 시작하여, 鷗鷺와 麋鹿을 가축삼아, 이미 자기 것이 된 값없는 청풍명월로 심화된 후, 멀어지는 紅塵과 世事를 들고 볼 리 없다는 만족감에 도달하면서 정점에 이른다. 여기서 ‘미륵을 가축으로 전환시키는 박인로의 문학적 상상력은 현실과 밀착된 자연인식, 생산 현장으로 파악하는 자연인식, 자연이 조화와 균제를 갖춘 이상세계일 뿐 아니라, 삶을 지속시켜주는 생산현장으로 인식되는 양상’<sup>45)</sup>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바, 한음 같은 거유가 생각하는 조화롭고 균형 잡힌, 이상세계의 원형으

로 생각하는 자연인식과는 다른, 노계의 현실적 자연관이 스며있는 것이다.

花開葉落 아니면 어니節을 알리련고/中隱菴 쇠북소리 谷風의 첫거느라 梅牕의 이  
르거든/午睡를 긋껴야 病目을 여러보니/밤비에 긋편까지 暗香을 보내여 봄철을 알  
외는다/春服을 처엄넙고 麗景이 더딘저고/靑藜杖 빗기쥐고 童子六七 불너내야/속넙  
난 잔췌에 足容重게 훗거리/淸江의 발을씻고 風乎 江畔호야 興을타고 도라오니/舞  
雩 詠而歸를 저그나 부를소나

이제 구체적으로 강호한정을 노래한다. 春興과 秋興을 자연풍경과 함께 주저  
리주저리 풀어낸다. 산바람에 실려 온 증은암 쇠북소리에 낮잠을 깨어, 밤비에  
핀 매화향기로 온 봄을 깨닫고, 봄옷을 꺼내 입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걷다가,  
동자 6,7명 불너내어 청강에 발 씻고 강바람 쐬면서 春興 속에 돌아오는 일상은  
증점<sup>46)</sup>도 부럽지 않다는 자부심과 만족감으로 충만하다.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사  
는, 평화롭고 안온하며 유유자적한 마음이 담겨있다.

春興이 이러커든 秋興이라 저글넛가/金風이瑟瑟호야 ... 머괴입 지느소리 먹은귀  
를 놀리느다/正值 秋風을 中心에 더욱반겨/낙티을 둘러메고 紅蓼을 헤쳐도리/小艇  
을 글러노화 風帆 浪楫으로 가느되로 더더두니 ..... 須臾 羽化호야 蓮葉舟에 올라  
느듯/東坡 赤壁遊인들 이내興에 엇지더며/張翰 江東去인들 오늘景에 미출넛가/居水  
에 이러커든 居山이라 偶然호랴/山房의 秋晚커늘 幽懷를 돌디업서/雲吉山 돌길히  
막디집고 ... 任意 逍遙호며 猿鶴을 벗을삼아/喬松을 비기어 四隅로 도라보니/天工  
이 工巧호야 ... 흰구름 말근넛는 片片이 썬여나라/노푸락 나지락 峯峯谷谷이 面面  
에 버러썬든/서리친 신남기 봄꽃도곤 불거시니/錦繡屏風을 疊疊이 돌너느듯/千態  
萬狀이 僭濫호야 보이느다

45) 서종문, 앞의 책, 151-155쪽 참고

46) 성백효 역주, 『논어집주』 선진편, 224쪽. “..點 爾 何如 ... 對曰 ... 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 하고 싶은 것을 묻는 스승 공자에게 늦은 봄, 봄옷이 이루어지면 어른 5·6명, 동자 6·7명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舞雩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면 서 돌아오겠다고 한 증점 고사 참고.

가을바람에 오동잎 지는 소리는 늘어, 먹은 귀까지 놀라게 한다고 시작되는 秋興은 春興의 2배가 넘는 길이로 그 흥취를 조목조목 노래한다. 먼저 居水를 묘사하고 노래하는 바, 낚싯대 둘러메고 작은 배를 타고, 물결치는 대로 던져두고 보는 풍경들이 잠깐 동안 신선이 되어 蓮葉舟에 탄 듯, 소동파가 赤壁遊에서 느꼈을 흥이나 장한의 귀향처 풍경보다 더 낫다는 사대부의 흥취-물아일체가, 전형적이고 관습적인 표현에 담겨, 자부심과 만족감으로 표출된다.

居山 또한 늦가을에 느끼는 그윽한 회포가, 돌길에 막대잡고 거닐며, 猿鶴을 벗을 삼고 큰 소나무에 기대어 바라보는 사면 경치묘사로, 조물주 숨씨에 대한 예찬으로 이어진다. 또한 흰 구름과 맑은 안개, 산봉우리와 골짜기들이 어우러진 자연이 열거와 의태를 활용하여 생생하게 묘사되고, 봄꽃보다 붉은, 서리 맞은 단풍나무까지 금수병풍을 둘러놓은 듯한 산세가, 천태만상이 과하다는 최고의 예찬으로 마무리되는 바, 기존의 자부심을 뛰어넘어 절정에 이른다.

힘세이 다토면 내분에 올라마는/禁히리 업술시 나도두고 즐기노라/하물며 南山  
 낙린긋히 五穀을 가초심겨/먹고 못남아도 굶지나 아니히면/내집의 내밥이 그맛시 엇  
 더히노/採山 釣水히니 水陸品도 잠안긋다/甘旨 奉養을 족다사 흥가마는/鳥鳥 禽情  
 을 뵈고야 말녇노라

이 부분은 구체적인 생활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어 이질적이다. 아름다운 자연을 “힘세이 다토면 내분에 올라마는/禁히리 업술시 나도두고 즐기노라”는 구절은 물론 한음의 안빈낙도에 부합하는 내면으로, 강호시가의 상투적 표현이기에 새롭게 않지만, ‘하물며’ 이후 내용은 ‘하물며’에 얹힌 노계의 마음도 느껴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남산자락 끝에 오곡을 심어, 먹고 남을 정도는 아니어도 좋으니, 그치지나 않는다면, 내 집에서 내 밥 먹는 그 맛이 어떨까 하는 주저하는 듯한 표현에서 부족함이 없었을 한음 이덕형의 관습적·피상적인 안빈지족보다는, 내 땅에서 내가 농사지어 내 밥을 먹을 수 있는 일이 지속되는 삶에 대한 노계의 간절하고 진실한 소망<sup>47)</sup>이 내포되어 있음이 느껴져서이다.

47) 김용철, 「(사제곡)에서 강호구성의 원리와 철학적 기반」, 앞의 논문, 34쪽에서는 이 부분을 <수

여기서 남산자락 텃밭은 전형적인 사대부의 강호시가에서는 보기 어려운 기본적인 생활터전인 바, 앞에서 언급한 현실과 밀착된 자연인식, 생산의 현장으로 파악하는 자연인식이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나 있음이다. 여기에 採山釣水로 나물과 생선까지 갖추어 부모 봉양하겠다는 효심이, 反哺之孝를 배우고 말겠다는 효성의 극진함으로 담겨있다.

私情이 이러하야 아직 물러 나와신들/罔極한 聖恩을 어너께에 이질년고/犬馬 微誠은 自首에야 더욱김다/時時로 머리드리 北辰을 바라보니/늬모락는 눈물이 두사된 예 다졌느다/이눈물 보건된 참아물너 날까마는/又득흔 不才에 病하나 디터가고/萱堂 老親은 八旬이 거의거든/湯藥을 그치며 定省을 뷔울년가/이지야 어너스에 이산밧긔 날오소냐/許由의 시스귀에 老萊子의 오슬입고/압피에 저술이 풀은쇠 되도록 함긔피 셔 늘그리랴

전형적인 退老 사대부의 내면이다. 벼슬로 聖恩에 응답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지만, 그래서 임금 계신 곳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망극함의 눈물이 소매를 적시지만, 그래서 눈물만 보면 물러날리 없을 것이지만,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私情때문에 허유처럼 속세를 버리고, 노래자처럼 효도하면서 함께 모시고 늙어 가리라는 다짐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한음이 임금과 강호, 출과 처를 두고 고민할 필요 없는 退老 즉 致仕閑客<sup>48)</sup>이기에, <사제곡>의 강호는 치사한객의 강호로서, 그 갈등이 임금과 강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과 효에 있는 바, 강호와 충효가 공존하는 삶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라 할 수 있다.

<사제곡>은 退老 사대부의 자족적이며 조화로운 삶이 담겨 있는 강호가사이다. 좌절감이나 소외감으로 인한 갈등이 없는 삶, 온유하고 화평하며 긍정적인 태도와 목소리는 박인로를 위로함으로써 그를 자기성찰어로 이끌어 간다. 전형적·이상적인 사대부의 내면을 자신의 내면에 수용·통합할 수 있게 되는 바, 분

항사)에 표출된 '자영농의 강호화'를 뒤집는 '강호의 자영농화'라 표현한다.

48) 김용철, 「<사제곡>에서 강호구성의 원리와 철학적 기반」, 앞의 논문, 35쪽에서는 <노계가>와 비교한다. <노계가>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임금 곁이지만, <사제곡>에서는 갈 수 있어도 갈 수 없는 임금 곁이라는 것이다. 즉 <사제곡>은 致仕閑客의 강호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분석한다.

열된 자기서사를 치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노계가 동경하는 강호의 삶을 표현·제시해 보면서 <사제곡>은 노계에게 작품서사로서 작용함으로써 마음의 평온, 자부심의 회복에 기여하며 넉넉한 자기긍정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제곡>은 박인로에게 당위의 서사, 理想의 서사로 작용한다.

#### 4. 작품서사와 자기서사의 통합 그리고 치유 - <노계가>

<노계가>에 이르면 여유 있게 자연을 즐기는 박인로의 내면변화가 잘 드러난다. 상대적으로 마음의 안정감, 세상의 기준이나 시선에 개의치 않는 넉넉함도 느껴진다. 말년(76세)에 쓴 <노계가>는 박인로의 변화된 자기서사에 기반 한 작품서사라 할 수 있다. 노계가 인생살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서사, 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서사, 노계 평생의 꿈의 핵심이 융합·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국과 연군, 태평성대에 대한 갈망이 강호에서의 안빈낙도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삶에 대한 ‘자부심’까지 표출된다. 이제 ‘그의 삶은 ‘당위와 현실 사이의 거리’에서 어느 정도 해방<sup>49)</sup>된 듯하다. 갈등의 서사였던 <누항사>가, 소망성취의 간접체험 즉 동경하는 사대부의 삶을 문학적 언어로 풀어내는 성찰과정에서 체득한 자기긍정의 <사제곡>을 거쳐 두 서사의 통합의 결과, 변화된 자기서사에 도달한 문학적 승화·치유의 지점이다.

白首에 訪水尋山 太晩 혼줄 앞전마는/平生 素志를 뵈고야 말라너겨/赤鼠 三春에  
春服을 새로넉고/竹杖芒鞋로 蘆溪김흔골의 行혀마참 차즈오니/第一 江山이 넘지업  
시 브려는다/古往今來에 幽人處士들이 만히도 잇것마는/天攄 地秘 ㅎ야 늑를주랴 남  
겨췌다

이 또한 <누항사>와는 전혀 다른 시작이다. 白首-많이 늦은 시기에, 訪水尋山

49) 서인석, 앞의 책, 309쪽.

끝에 찾아 든 노계 골짜기를 하늘과 땅이 자기를 위해 감추어 놓은 곳이라고 말하는 자부심은 〈사제곡〉에서 退老가 보이던 벼슬살이 언급조차 없어, 이를 초탈한 마음의 평온함이 느껴진다. ‘이루고 말리라 여겼던 평생의 뜻’은 박인로의 자기서사 표출이라 할 수 있는 바, 은일지사로 살아갈 제일강산을 찾아, 그 제일강산에서 안빈낙도하며 유유자적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 여기에는 평생 꿈꾸었던 산수를 현실로 만나는 감흥, 그리하여 강호의 삶을 시작하는 흥취가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있다. 문학치료에서 치료란 자기서사가 작품서사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사제곡〉 등 가사 창작<sup>50)</sup>을 통해 도달한 변화이다.

躑躅 良久타가 夕陽이 거인적의/陟彼 高岡 ㅎ야 四隅로 도라보니/玄武朱雀과 左右 龍虎도 그린듯시 ㅁ갓고야/山脈 밋친 아티 藏風 向陽 ㅎ디/靑蘿를 허허드러 數椽 蝸室을/背山 臨流 ㅎ야 五柳邊에 디어두고/ ..... 草草亭 ㅎ두間을 구름썬 긴솔아리 ... 千態 萬狀이 아마도 奇異코야/峯巒은 秀麗 ㅎ야 富春山이 되야잇고/流水는 盤回 ㅎ야 七里灘이 되야거든/十里 明沙는 ... 이湖山 形勝은 견줄디 뇌야업니/巢許도 아닌몸에 어니節義 알리마는/偶然 時來에 이名區 임직되여/靑山流水와 明月淸風도 말업시 절로절로/어즈러은 鷗鷺와 數업슨 麋鹿도 ...沮溺가던 목은밭과 嚴子陵의 釣臺도 갑업시 절로절로/山中 百物이 다절로 己物되니/子陵이 돌이오 沮溺이 서히로다 ... 入山 當年에 隱君子 되얏는가 ... 人間의 이일홈이 人力으로 일월소냐/山川이 靈異 ㅎ야 도아닌가 너기로라

안빈을 누리는 참모습이 옛보인다.<sup>51)</sup> 관습적·전형적이긴 하지만, 현무와 주작, 청룡과 백호 같은 산의 형세를 갖춘 곳, 바람이 가려지는 양지바른 곳에 지은 아주 작은 집 등, 자신이 찾아 낸 제일강산에 대한 만족감을, 산과 물과 모래들로 기이한 천태만상이 펼쳐진, 비교할 곳이 없는 胡山形勝, 엄자룽이 낚시하던 富春山에 비유하는 자부심으로 유려하게 표출한다.

50) 이 글에서는 〈사제곡〉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나, 넓게는 〈독락당〉 〈소유정가〉 〈입암별곡〉 등 작품창작을 거치면서 도달한 궁극적 지점이 〈노계가〉라 할 수 있다.

51) 정재호, 『박인로론』, 『한국가사문학론』, 집문당, 1982, 454쪽.

또한 名區勝地 주인 된 흥이 파격적 율격에 실려 표현된다. 청산유수, 명월청풍, 鷗鷺와 麋鹿, 沮溺이 갈던 묵은 밭과 嚴子陵의 釣臺 등 전형적인 강호공간이 말도 없고 값도 없이 절로절로 자기 것이 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실감나게 노래한다. 관습적 표현이지만, 내적 만족감의 진실한 토로라 할 수 있다. 嚴子陵이나 沮溺같은 저명한 隱君子가 된 자부심에, 이를 人力이 아닌 산천이 靈異함에 공을 돌리는 여유까지 보이는 바, 진정한 자기정체성을 찾아낸 늙은 사대부의 내면<sup>52)</sup>이 잘 담겨있다. 이상적 공간-자연에 침잠하면서 편안한 경지에 도달한, 참된 자연 속에 사는 즐거움을 깨달은 자의 노래인 것이다.

中心이 鑿然<sup>호야</sup> 世慮절로 그치디니/光風霽月이 腔子裏에 품었는듯/浩然眞趣 날로 새롭<sup>호노애라</sup>/飛禽走獸는 六畜이 되얏거늘/달알이 괴기낙고 구름속의 밧흘가라/먹고 못나마도 그칠적은 업노애라/無盡<sup>호</sup> 江山과 許多<sup>호</sup> 閑田은 分給子孫 好<sup>려이</sup>와 /明月淸風은 논<sup>호</sup>두기 어려울<sup>시</sup>/才<sup>와</sup> 不才<sup>에</sup> 養志<sup>호</sup>는 아들<sup>호</sup>야 ..... 내의 이말이 迂闊<sup>호</sup>듯 好<sup>것</sup>마는/爲子 孫計는 다만인가 너기로라

세상근심에서 벗어나 날로 새로워지는 浩然眞趣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다. 비록 鷗鷺와 麋鹿은 아니지만 飛禽走獸가 가축이 되어있고, 달 아래 고기 낚고 구름 속에 밧을 가는 유유자적함으로, 먹고 남지는 않지만 그칠 적 없는 경제적 안정을 성취했는 바, <누항사>의 처절한 가난과는 다른 모습이다. 갈등과 절망, 소외감과 외로움, 그리고 그 근원이었던 가난이라는 근심이 절로 그치는 변화된 현실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있다. 부정적 자기서사의 극복인 것이다. <사제곡>에서 살짝 내비친 내 땅에서 내가 농사지어 내 밧을 먹을 수 있는 일이 지속되는 삶에 대한 노계의 간절하고 진실한 소망이 <노계가>에서 성취되고 있다. <사제곡>에서 말했던 남산 자락의 텃밭은 전형적인 강호시가에서는 보기 어려운 구체적 삶의 현장, 현실과 밀착된 실제적인 공간으로서 <사제곡>에서 드러냈던 자

52) 최현재, 「노계가사에 나타난 장소성의 양상과 그 의미」, 앞의 논문, 77쪽; “박인로는 ‘누항’에서 실존과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지만, ‘사제’ ‘소유정’ ‘독락당’ 등을 거치면서 진정한 장소감을 인식하게 되고, 결국 실존적 내부성을 갖춘 자신만의 고유한 장소인 ‘노계’를 확보하게 된다.”고 언급.

기서사가 <노계가>에서 통합되고 있음이다.

또어린 이몸은 仁者도아니오 智者도아니로되/山水에癖이이러 늘글수록 더욱흐니  
/저貴혼 三公과 이江山을 밋골소냐/어리미친 이말을 우으리도 하렷마는/아프리 우  
어도 나눈도히 너기노라 ... 世間 名利란 쓴구름 본덧흐고/無思 無慮호야 物外心만  
품고이셔/이너 生涯을 山水間의 부터두고/春日이 채긴제 낙딴을 비기쥐고/葛巾 布  
衣로 釣臺에 건너오니/山雨는 잠깐개고 大陽이 쪼오논디 ... 괴기도 나치이거 놀닐  
줄 모르거든 차마엿디 낙글넉고/罷釣 徘徊호며 波心을 구어보니/雲影 天光은 얼희  
여 줌겨논디/魚躍 于淵을 구름우히 보아고야/하문득 驚怪호야 俯察仰觀호니 上下天  
이 宛然호다/一陣 東風에 괴엇진 漁笛이 놓히부러 보너던고/江天이 寥寂호디 반가  
와도 들리느다 ... 臺中 清景이 아마도 蕭灑코야 ... 碧水 長天은 흐빋티 되얏거든/물  
가에 白鷗는 오논듯가논듯 굿칠줄을 모르느다

강호한정에 대한 지극한 애정이 고치기 어려운 癖이라 겸양한다. 삼공벼슬을  
경험한 한음과는 다른 반응이다. 늙을수록 더하는 자연애호를 삼공벼슬과도 바  
꿀 수 없다는 관용적 표현으로 강조하지만, ‘어리 미친’ 자신의 말을 비웃는 사람  
이 많아도, 그를 좋게 여긴다는 자신감이 새롭다. 타인의 반응까지 의식하며 강  
조하는 태도에는 자기 확신과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진심이 담겨 있다. 더구나  
세상 명리를 뜬구름처럼 본다는 표현에 이어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산수 간 생활  
으로 침잠하는 정신적 여유가 편안하다.

잠깐 간 비에 햇볕과 맑은 바람, 물과 고기와 함께 하는 봄날 낚시풍경이 평화  
롭다. 고기도 낚이 익어 차마 낚을 수 없다고 포기해 버리는 유유자적함에는 경  
지에 이른 사대부 내면의 넉넉함까지 드러난다. 어떤 갈등도 약육강식도 없는  
자연과의 조화가 독자까지 치유하는 듯하다. 더하여 하늘빛과 물빛, 거기에 비친  
구름, 동풍에 실려 들리는 漁笛소리가 반가울 정도로 적막한 곳, 푸른 물과 긴  
하늘이 한 빛인 곳에 백구만 끊임없이 날아오르는, 江天풍경은 靜中動, 적막한  
고요 속의 漁笛 소리 등 자연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가 또 편안하다.

巖畔 山花는 錦繡屏이 되어잇고/澗邊 垂楊은 草綠帳이 되어거든/良辰 佳景을 내

혼자 거느리고/正值 花時를 虛度치 밀나너겨/아희블너 하느말슴 이深山 窮谷에 海  
錯이아 보로소냐/살진 고사리 ... 當歸草를/豬脯鹿脯 ... 細柳筍에 洽足히 다마두고/  
鮒魚膾 ... 訥魚生雉 서거구어 ... 瓦樽에 白酒를 박잔의 가득부어/혼잔 쏘혼잔 醉토  
록 먹은後에/桃花는 紅雨되야 醉面에 쓸리는디/苔磯 너븐돌에 놓히베고 누어시니/  
無懷氏적 사름인가 葛天氏적 百姓인가/羲皇 盛時를 다시본가 너기로라

수놓은 비단병풍 같은 꽃들, 초록 장막처럼 물가에 늘어진 버들, 이처럼 “良辰  
佳景을 내혼자 거느리고/正值 花時를 虛度치 밀나너겨” 아이 불러 온갖 안주 차  
려놓고 막걸리를 취하도록 마신 후에, 도화꽃 흩날리는 속에 넓은 돌 높이 베고  
누운 노계의 행복감이 눈에 보이는 듯 선명하다. 지금이 무희씨, 갈천씨, 희황성  
시를 다시 본 듯한 태평성대임을 강렬하게 드러낸다. 강호에서의 이상적인 삶의  
절정과 그 취흥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에 영탄적 언어로 흥겹게 표출되어 있다.  
〈사제곡〉에서는 보이지 않던 호탕한 풍류와 도도한 취흥이다.

〈누항사〉에서 실존과 정체성의 위기로 괴로워하던 것과는 판판이다. 호탕한  
풍류와 도도한 취흥을 거의 드러내지 않던 작가가 말년에 비로소 성취한 노계  
복거 앞에서는 마음껏 심회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sup>53)</sup> 가난과 배고픔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다. 배부름과 흥겨움이 있을 뿐이다. ‘노계가 바라는 이상적 삶의 모  
습<sup>54)</sup>’이 형상화되어 있다. 〈노계가〉에 드러난 자기서사는 강호풍류의 절정에서  
치유에 도달한다. 힘든 자기서사의 토로를 통한 카타르시스(누항사)와 건강한  
작품서사를 통한 성찰(사제곡) 끝에, 갈등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힘이 뉘힘고 聖憐이 아니신가/江湖에 물너신들 憂君 一念이야 어너刻에 이즐  
고/時時로 머리드러 北辰을 바라보고/눈모르논 눈물을 天一方의 디이는다/一生에  
품은뜻을 비읍는다 하느님아/山平 海濤토록 우리 聖主 萬歲소서/熙熙 世界에 三代  
日月 빛취소서/於千 萬年에 兵革을 쉬우소서/耕田 鑿井에 擊壤歌를 불리소서/이몸  
은 이江山風月에 늘글주를 모르로라

53) 최현재, 「노계가사에 나타난 장소성의 양상과 그 의미」, 앞의 논문, 75쪽.

54) 최상은, 앞의 논문, 272쪽.

태평성대임을 만끽하던 박인로는 이제 이 모든 것이 聖恩임을 예찬한다. 어디 있는 聖恩에 응답하는 것이 사대부의 당연한 책무라 말한다. 그를 지탱하는 유가적 신념에 의한 진심의 표출이다. 상투적·관습적이지만,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임금걱정, 때때로 머리 들어 임금 향해 흘리는 감사의 눈물로 그 꿈을 완성한다. 완벽한 유가적 이상세계의 완성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일생의 품은 뜻’을 기원한다. 자신의 군주가 만수무강하는 것, 전쟁 없는 태평성대가 지속되는 것,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밭 갈고 우물 파서 사는, 생활의 기본만 해결되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래서 격양가를 부를 수 있는 세상을 희구하는 것이다.

貧賤과 소외감의 고통 속에서 단사표음과 五倫(충효, 화형제, 신봉우)을 다짐하던 <누항사>, 충성심보다는 극진한 효성으로 늙은 부모를 공양하는데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사제곡>과는 달리, <노계가>는 성은에의 감사와 삼대 지치-완벽한 도덕정치가 실현되는 조화로운 세계-의 이상적 태평성대에 대한 간절한 기원으로 마무리된다. 그렇다면 자신은 자연 속에서 모든 시름을 잊고 풍류를 즐기며 늙도록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는 노계가 소망했던 세계의 표출이라 보아도 좋을 듯하다. 즉 가난으로 인한 좌절감도 몰락향반으로서의 소외감도 없는 삶, 노계가 생각하는 유가적 이상세계의 실현에 도달한 것이다.

<노계가>에 이르러 박인로는 그 누구도 아닌 자신만의 안빈낙도, 만족감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강호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노계가>에는 박인로에게 전형적·이상적 사대부로서 유교적 당위의 세계였던 ‘이덕형의 삶-작품서사’를 통해 수용·통합된 자기긍정,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찾아낸 늙은 사대부의 자기서사가 표출되어 있다. 박인로다운 완벽한 유가적 이상세계의 완성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계가>는 극복의 서사, 완성의 서사이자 치유의 서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의 서사인 <누항사>와 당위·理想의 서사인 <사제곡>이 통합된 세계로서 극복·완성의 서사인 <노계가>에 이르렀다 해도 좋을 것이다.

## 5. 맺음말

이 글은 문학치료 서사이론을 중심으로 박인로의 〈누항사〉와 代作인 〈사제곡〉, 노년작인 〈노계가〉를 연결시켜 강호가사라고 하는 동일성 위에 드러나는 그의 내면변화를 살펴보았다. 문학치료 서사이론에서 치유는 작품서사를 통하여 갈등에 처한 자기서사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일이다. 즉 질병상태의 자기서사를 보충·강화·통합하는 단계를 거쳐 자기서사의 변화를 유도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변화가 긍정적일 때, 문학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작품서사는 자기서사에 누락된 부분을 보충해 주기도 하고, 미약한 부분을 강화시켜 주기도 하며, 분열되어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합해 주기도 하면서 자기서사의 변화를 유도한다고 본다. 다만 이 세 단계는 대체적인 흐름일 뿐 얼마든지 넘나들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sup>55)</sup> 이처럼 문학치료 서사이론에 의하면 자기서사의 건강성을 획득하는 것이 치료라고 보며, 이는 곧 자기서사의 성장과 관련된다.<sup>56)</sup>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박인로의 자기서사가 변모·성장하는 과정을 작품서사와의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누항사〉는 갈등의 서사로서, 자신의 빈궁한 삶을 소상하게 이야기 함으로써 깊어지는 좌절감이 표출되어 있었다. 현실과 당위의 거리라는 분열된 자기서사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와 상황, 고통을 밖으로 드러내는 일은 치유의 첫걸음이다. 왜냐하면 ‘작품서사가 창작’을 통한 좌절의 토로는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바, 성찰 끝에 도달한 안빈낙도와 유가적 이념의 확인, 즉 자기서사의 핵심 발견을 통한 카타르시스가 어느 정도 표출되어 있었고,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지만, 좌절 극복의 기반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退老 사대부의 자족적인 삶, 인간과 자연, 이념의 조화를 내재한 작품서사 〈사제곡〉 代作은 박인로에게 전형적이지만 이상적인 사대부의 내면을 ‘자기서사’에 수용·통합할 수 있게 한다. 재지사족인 박인로가

55) 정운채,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밑그림」, 앞의 논문, 171-174쪽.

56) 정운채, 「문학치료와 자기서사의 성장」, 『우리말교육현장연구』 4집,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0, 7-54쪽.

거대가문인 이덕형을 대신해서 작품을 지으면서 이덕형의 세계관에 이끌린 결과라 볼 수 있다.<sup>57)</sup> 박인로가 동경하는 삶, 유교적 당위의 세계를 표현·제시해 보면서 <사제곡>은 노계에게 당위의 서사·理想의 서사로 작용, 만족감·자부심의 회복에 기여하며 넉넉한 자기긍정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바, 자기서사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한다. 극복·완성의 서사인 <노계가>에 이르면, 이제 박인로는 자신만의 안빈낙도, 만족감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강호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작품서사를 통해 수용·통합된 자기 긍정,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찾아낸 늙은 사대부의 자기서사가 표출되어 있는 것이다. <노계가> 창작은 궁극적으로 현실과 이상의 갈등 해소·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통합의 결과로서 치유에 도달한 지점이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노계는 가사창작 행위를 통해 내적 치유에 도달한 바, 갈등의 서사인 <누항사>가, 당위·理想의 서사인 <사제곡>-작품서사를 통해 보충·강화되었으며 <노계가>라는 통합단계를 거쳐, 긍정적인 자기서사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 바, 변화된 자기서사·극복·완성의 서사에 기반 한 작품서사를 창작함으로써 갈등의 근본적 해소, 치유가 가능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창작이 심리적 장애를 극복하는 장치로서 작용 가능함을 의미하며, 나아가 가사의 이해와 감상, 창작이 정서적 안정·자아성찰을 거쳐 자아실현에 이르게 하는 치유적 효용성을 지니고 있음<sup>58)</sup>을 뒷받침한다.

57) 김용철, 「<사제곡>에서 강호구성의 원리와 철학적 기반」, 앞의 논문, 42-43쪽.

58) 김은희, 「가사문학의 창의적 가치」, 『한국시가문화연구』 37, 한국시가문화학회, 2016, 68.

## 참고문헌

### 1. 자료

『高宗實錄』 제목판본 『노계선생문집』(1831), 서울대 규장각본, 한국고전번역원DB  
임기중 편저,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5권·9권, 아세아문화사, 2005

### 2. 논저

김석희, 「문학치료적 관점으로 본 도산십이곡의 서정적 특질」, 『문학치료연구』 2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9-40쪽.

(UCI: G704-SER000008852.2012.23..002)

김성룡, 「〈누항사〉와 강호의 의미」, 『한국고전시가작품론』, 집문당, 1995, 691-698쪽.

김용철, 「〈누항사〉의 자영농 형상과 17세기 자영농 시가의 성립」, 정재호편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249-286쪽.

\_\_\_\_\_, 「〈사제곡〉에서 강호구성의 원리와 철학적 기반」, 『어문논집』 40, 민족어문학회, 1999, 25-60쪽

김은희, 「가사문학의 창의적 가치」, 『한국시가문화연구』 37, 한국시가문화학회, 2016, 63-94쪽.

(UCI: IG704-001062.2016..37.005)

김학성, 「가사의 양식특성과 현대적 가능성」, 『우리 전통시가의 위상과 현대화』, 보고서, 2015, 304-337쪽.

나지영, 「문학치료학의 ‘자기서사’ 개념 검토」, 『문학치료연구』 제1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42-53쪽.

(UCI: G704-SER000008852.2009.13..006)

박연호, 「〈누항사〉에 나타난 ‘가난’과 ‘우환’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64, 2013, 341-364 쪽.

(UCI: G704-001066.2013..64.002)

박태진, 「〈누항사〉 창작에 발현된 자기치유기제의 가치 모색」,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고전문학과 교육』, 2013, 293-315쪽.

(UCI: G704-001589.2013..25.006)

서인석, 「가사 속에 담은 궁핍한 삶과 안빈낙도」, 『한국고전문학작가론』, 소명출판, 1999, 287-313쪽.

서종문, 「박인로 문학세계의 현실적 토대와 세계인식」, 『지역사회와 민족운동』, 한길사,

1987, 139-161쪽.

성범중, 「노계 문학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94호, 1985, 217-237쪽.

성호경, 「박인로의 <노계가> 창작배경 탐색」, 『고전문학연구』 51집, 2017, 35-63쪽.

손대현, 「노계 박인로의 경제적 기반과 문학적 형상화」, 『한국시가연구』 29집, 2010, 121-156쪽.

(UCI: G704-000454.2010.29..005)

심재완, 「노계가사의 특색」, 『한국시가문화연구』 9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02, 152쪽.

(UCI: G704-001062.2002..9.001)

우영순, 「박인로의 ‘안빈낙도’ 의식과 자연」, 『한국학보』 41, 1985 겨울, 37-58쪽

윤영옥, 「<사계곡>과 <소유정가> 연구」, 『한민족어문학』 40, 한민족어문학회, 2002, 169-204쪽.

(UCI: G704-001066.2002..40.010)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 및 서사의 주체」, 『영화와 문학치료』 3, 서사와 문학치료연구  
구소, 2010, 317쪽-329쪽.

\_\_\_\_\_,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47-278쪽.

(UCI: G704-SER000008852.2008.9..001)

\_\_\_\_\_, 『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 도서출판 문학과 치료, 2006, 1-436쪽.

\_\_\_\_\_, 「문학치료와 자기서사의 성장」, 『우리말교육현장연구』 4집, 우리말교육현장학  
회, 2010, 7-54쪽.

(UCI: G704-SER000001820.2010.4.2.004)

\_\_\_\_\_,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밑그림」, 『고전문학과 교육』 제8집, 한국고전문  
학교육학회, 2004, 159-176쪽.

(UCI: G704-001589.2004..8.004)

\_\_\_\_\_, 「서사접속 및 서사능력과 문학연구의 새 지평」, 『문학치료연구』 제24집, 한국문  
학치료학회, 2012, 153-170쪽.

(UCI: G704-SER000008852.2012.24..009)

정재호, 「박인로론」, 『한국가사문학론』, 집문당, 1982, 455-456쪽.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6(1984), 314-316쪽.

최상은, 「노계가사의 창작기반과 문학적 지향」, 『한국시가연구』 11집, 2002, 255-278쪽.

(UCI: G704-000454.2002.11..012)

최현재, 「노계가사에 나타난 장소성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34집, 2013,

57-82쪽.

(UCI: G704-000454,2013,34,.004)

\_\_\_\_\_, 「박인로의 〈노계가〉에 나타난 강호인식의 양상과 그 의미」, 『한민족어문학』 65집, 2013, 235-266쪽.

(UCI: G704-001066,2013,.65,020)

한명희,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본 영화 〈시〉 -미자의 시 창작 행위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2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79-105쪽.

(UCI: G704-SER000008852,2013,26,.010)

프로이트 저, 김미리혜 역, 『히스테리 연구』, 열린책들, 2003, 19-20쪽.

| Abstract |

## A Study on Ro-gye Gasa

— Focused on the Narrative Theory of Literary Therapy —

Kim, Eun-hee

This paper examines Park In-ro's inner changes revealed on his works <Noohangsa>, <Sajegok> and his late work <Rogyega>. According to the narrative theory of literary therapy, there are narratives at the base of literary works. There are self-narratives at the inner side of writers and readers, and the gap and discrepancy between self-narratives and narratives of the work give impetus to the changes of self-narratives. And understandings of work and life changes and grows. At this moment, the change and growth of the self-narrative are possible through the supplementation, strengthening, and integration of the self-narrative, and it is the treatment to acquire the healthy of the self-narrative. In this context,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cess of changing and growing the self-narrative of Ro-gye in relation to the narrative of the works.

As a narrative of conflict, <Noohangsa> reveals a perception of divided self-narrative as the distance between the reality(poor life) and oughtness (Anbinnakdo and oryun-Confucian ideas). It is the first step of healing to reveal one's situation, position and suffering. The exposing of conflict through the creation of <Noohangsa>(Gasa) makes it possible to reflect. Reflection allows the possibility of catharsis through the discovery of the essence of self-narrative, and it becomes the basis for overcoming conflict. The narrative <Sajegok>, which embodies the harmony of human, nature, and ideology, allows Park In-ro to accept and integrate typical and ideal inner aspect of the gentry into the self-narrative of the work. While expressing and presenting the world of Confucian righteousness, <Sajegok> acts as a narrative of the righteousness and ideal to Ro-gye, contributes to recovery of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d enables a change to ample self-affirmation. And the process contribute to healing the devised self-narrative eventually. When it comes to the overcoming and completing narrative, <Rogyega>, Park In-ro is arriving at a 'Gangho' awareness of his own 'Anbinnakdo', full of satisfaction and pride. Self-narrative of an old gentry is revealed in the work. The creation of <Rogyega> resolves conflicts between reality

and ideal - it is the point where reaches to healing as a result of the integration of his self-narrative and narrative of the work.

Park In-ro was able to reach internal healing through the creation of Gasa, and the narrative of conflict, <Noohangsa>, was replenished and strengthened through the narrative of the righteousness and the ideal, <Sajegok>. After undergoing a consolidation phase, it is resulting in a positive change of self-narrative in <Rogyega>. It is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healing has become possible by creating a narrative of a work based on the changed story of self-narrative and overcoming and completion.

**Key words** : Ro-gye Gasa, Literary Therapy, Narrative Theory, Self-narrative, Narrative of Work, Narrative of conflict, Narrative of Ideal, Narrative of Overcoming

